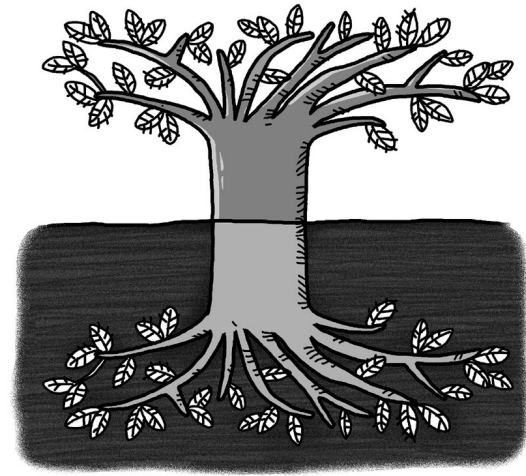


꼭 마음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를 진짜로 믿으세요



안아서 세상을 다 굴리고 세계를 다 굴리고
우주를 다 굴릴 수 있는데
어째서 그렇게 비천하게
자기 한 발짝 떼어 놓으라는데도 못 떼어 놓습니까?

“마음으로 무한량 주고받는 통신을 해보세요”
내 전화부터 개통해야 모든 이웃과 통화 가능

자기의 진화를 생각해 보면
과거로부터의 배우모 배우자
내형제 내모습 내도량 아난게 없어

여러분은 꼭 마음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
각자 여러분의 뿌리를 진짜로 믿으십시오.
마음으로는 그 몸을 다스리면서 행동하셔야 되고
안으로는 믿고 가야 합니다.

발자취 짙어지고 온사람 없듯

발자취 짙어지고 온사람 없듯이
함없이 했기에 배가 한것 없어
모두가 쏙 합니다

생명을 나와같이 생각하고
모습을 나와같이 생각하고
아픔을 나와같이 생각하면
그게 바로 사람의 도리죠

방법은 하나로 돌아갔는데

그 하나는 어디로 갔는고
돌이 아닌 도로로 마음 쓸때
견성성불도 포함돼 돌아가

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
발자취 붙잡지 않고 그냥 걸어갈 뿐
말과 행을 함이 없이 해야하고
내고 들이는 것 철두철미해야
인의롭고 슬기롭게 대처하면서
용기와 믿음으로 공부한다면
어떤 병고도 대처할 힘 생겨
말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
실천할 수 있는 심력을 길러야
모자라고 잘못하는 사람
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보면
분기 사라지고 인의로워져

길을 가다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듯

자기가 땅을 걸어가다 엎드러지면
땅을 짚고 일어나듯이
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을
자기한테다 맡겨 보라!
이 생각 저 생각 나기 때문에
광대하게 부처를 이룰 수 있어
속지 말고 한군데서 나온 거
한군데에 제대로 되놔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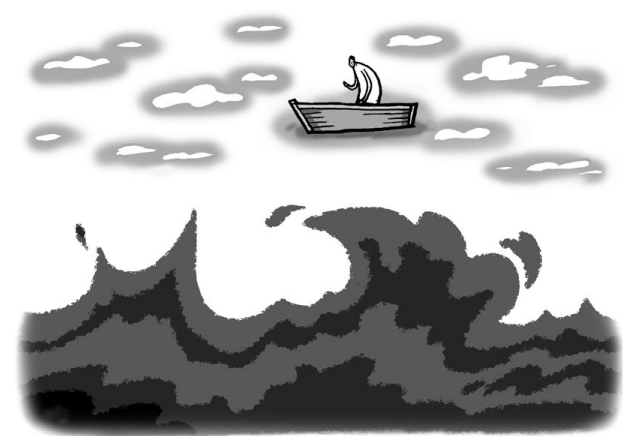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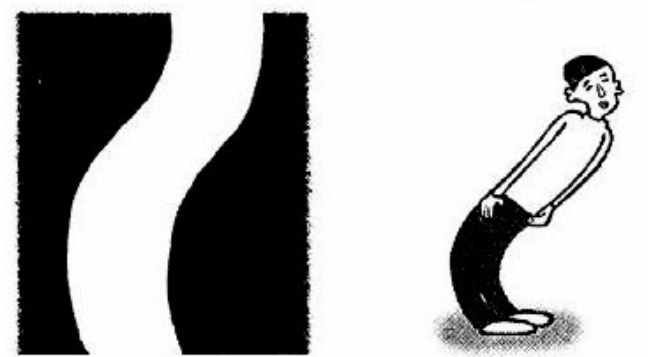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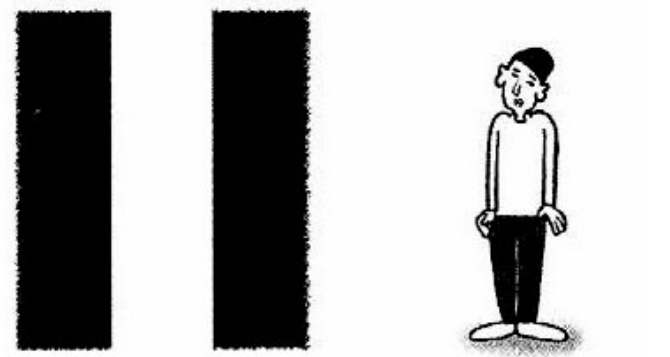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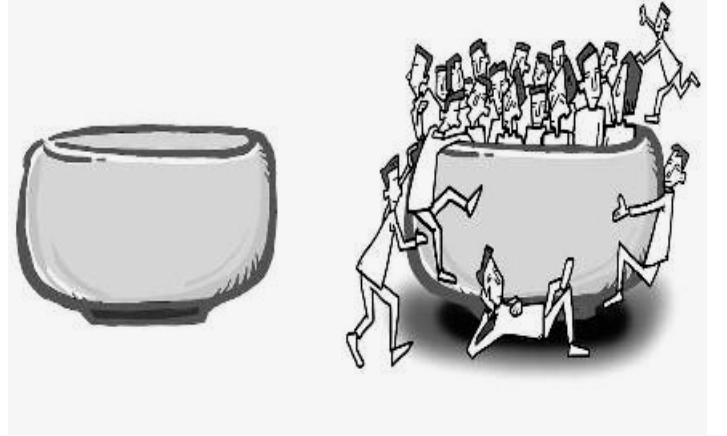
진실하게 자기 자성을

믿어야 하고
물러서지 않아야 하고
그대로 믿고 활용을 하고
믿고 넘어가야 된다

여러분이 이 마음도리를 이론이나 학술로다
대단하게 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
내가 모르더라도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서
내가 체험을 하고 갈 수 있게끔
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낮추세요.
낮추시면서 항상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,
한 형제로서, 한 부모 자식으로서
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아리따운 마음이
바로 사랑보다 더 진한 자비입니다.

“수박을 쪼개서 맛을 보지 않고
'이끼 뭇 일꼬' 들여다만 보면
20년 50년을 해도 맛을 모릅니다”

“너만이 할 수 있다” 하고 놓는게 관
어떤 경계든 사랑에 그달리지 말고
남을 믿고 관하십시오”



한마음과학원 031)470-3200

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

당신이 주인공입니다

한마음아버지마당

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

‘아버지’는 ‘나’라는 배우가 맡은 수많은 배역 중 하나일 뿐입니다. 아버지란 얼굴을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, 어떤 바램들이 떠다니는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. 아버지, 아들, 남편, 가정이라는 이름의 문들을 하나씩 열어봅니다. 그동안 ‘나’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고요히 지켜봅니다. 서로 연결된 친구처럼, 내 마음에 불이 켜지면 상대의 마음에도 저절로 불이 켜집니다. 내 마음의 불 밝혀 소중한 가족 인연들이 모두 화해될 수 있는 한마음아버지마당에 당신을 초대합니다.

대상 아버지면 누구나
일시 2015년 2월
장소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 및 선원 경내

부모들을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

일시장소
* 대상: 자녀를 둔 아바엄마
* 2015년 5월
*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 및 선원 경내

학부모 프로젝트

지혜와 자비의 다스림

구성	주차명 (내가 나에게, 자녀에게)
1부 지혜로운 마음	주인공으로 살아요 평가하지 말아요 다그치지 말아요 싸우지 말아요
2부 자비로운 마음	고맙습니다 쉽 내 안의 꽃을 피워요

한마음과학원

나로부터의 시작

생활속 참선수행 프로그램

교육기간
2015년 3월 ~ 6월

장소
한마음선원

참가자격
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

한마음과학원